

민주 전준위 구성 '8월 전대체제' 돌입



“함께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다섯번째),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위원장 오제세...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단일지도체제' 도입 전준위 이번주 첫 회의 개최...최고위원 규모·전대 룰 등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으로 오제세 의원을 선임했다. 김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제세 의원이 전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이를 포함한 전준위 안건 등을 금요일(22일)에 최종 당무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25일 전당대회 준비를 맡는 당내 기구다. 특히 전준위원장은 향후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 전당대회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결정하게 된다. 전준위 부위원장은 3선의 민병두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재선의 김민기 의원이 선임됐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오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후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18·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한 4선 중진이다. 오 의원은 “전준위가 꾸러지면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과 관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으로는 지도체제가 불안정했다”며 “대표 중심으로 굳건한 지도력을 형성하고 최고위원들이 받쳐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권도전에는 자천타천으로 2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으나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일부 당권 주자들은 최고위원으로 하향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을 몇 명으로 할지는 추후 전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지도부는 추미애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5명,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컷오프 방안을 도입할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도 전준위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가 승리한 지난 전당대회에선 3명 컷오프 후 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30%), 일반 여론조사(25%)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후 바뀐 당규에선 대의원·권리당원(85%), 일반 여론조사(15%)를 합산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원 수가 늘면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전준위 외에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3선 의원이자 당 사무총장인 이준석 의원, 선거위원장에는 역시 3선인 노용래 의원이 선임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8월초 조기전대...정동영·유성엽 출마 의사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8월 초 전당대회를 실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20일 여의도 한중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7월 29일과 8월 5일 사이에 전대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한 달간의 짧은 일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고 해서 전준위를 구성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대를 치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대준비위원장은 정인화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으며 장병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평화당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 조배숙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 조기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당은 당 대표를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여성·청년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당연직 최고위원 3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에 오르고 나머지 4명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우리

가 아주 심하게 졌다, 참패했다, 흑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우리보다 의원 수가 많고 선거보조금을 많이 받은 바른미래당이 26명의 당선인을 낸 데 비하면 우리는 57명의 당선인을 내는 등 호남에서 당의 존립 기반을 만든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 수습 방안을 놓고 평화당 중진 의원들은 대립했다. 특히 워크숍에 앞서 6선의 전정배 의원과 4선의 박지원·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당 대표를 비롯한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새 인물을 키우라고 하

고 있다. 박지원, 정동영, 전정배, 조배숙은 (지도부) 전면에 나서지 말자고 오전 회동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워크숍에서도 “초선 대표론·중진 병풍론”을 강조했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평화당은 현재 정당 선언만 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제대로 창당이 안된 상태”라며 “초선이 당 대표를 하면 단기적으로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 건설 과정에서는 고도의 경험과 정치력이 필요하기에 중진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또 유성엽 의원의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대표 주자로 최경환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에서 고집하는 데 당의 실정과 양미강 여성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문대통령, 한-러 공동변영 비전 소개

방러 앞 현지 언론 인터뷰...월드컵 한·멕시코전 관람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스키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 방송과 합동 인터뷰를 통해 한·러 양국의 공동변영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19년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개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러 관계 발전과 양국 공동변영을 위한 협력 비전

메시지를 소개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2박 4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의 면담, 러시아 하원 연설 등을 할 예정이다. 이어 한·러 친선 의원의 밤, 한·러 비즈니스 포럼 참석 후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 2018 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 예선을 치르는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참패 한국당 살림 줄인다

중앙당사 여의도→영등포 이전...서청원 탈당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20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영등포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당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당사를 이전하기로 했고 계약도 마친 상태”라며 “7월까지의 현재 당사를 정리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 한양빌딩을 당사로 사용해 왔으며 이곳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하지만, 20대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회 의석수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에 겪었고 홍준표 전 대표 시절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 이전을 검토해왔다. 여기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세신방안

의 하나로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당사 이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사는 2~6층과 7층 일부에 대한 입찰로 매달 1억원 가량을 내고 있지만, 이전하는 영등포 당사는 2개 층만 임대해 매월 20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입장문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바른미래는 진보·보수 공존 정당”

연찬회 후 선언문...이상돈 등 비례 3인, 다시 출당 요구

바른미래당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당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의 중심점인 안철수 전 서울시 후보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추후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경기도 양평에서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간 연찬회를 진행한 결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창당취지와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되살려 보고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내용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면서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

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때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진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을 갖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진보’를 비롯해 ‘중도, 보수’ 등 이념적 표현을 아예 빼면서 당 정체성 논란이 일었다. 또 바른미래당의 성격을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라고 규정하는 등 ‘진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엔 두 글자를 다 넣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된 셈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이날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심판받았다”며 자신들의 출당을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2018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6
		유아교육학과(D.Ed.)	2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6
		유아교육학과(M.Ed.)	3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3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2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6. 11(월) ~ 22(금)
- 전형일 : 2018. 6. 27(수)
- 합격자발표 : 2018. 6. 29(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96